

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8년 4월 6일 (월) 제710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 김경희 주간 변제월 편집장 김경희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2, 962-7208(문)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문) 033-30-4112 서울시 종로구 이문동 270 경기도 모현면 환산리 산 88

이사장, 돌연 박승준 재선임

양 총학, 교무위, 노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지난달 30일(월) 제단과 서울총학의 합의가 타결되면서 제단사회가 일관력 되는 듯 보였으나 이를 후인 1일(수) 이숙경 이사장은 박승준 전 제단전무 이사를 다시 재선임으로 밤이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태는 다시 긴장을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승준은 축구방과 재발방과 △학교발전방 △제단사회개혁방과 △성관개정과 학사방증수 등 4가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국의 국어학교 발전과 제단개혁을 위한 선언’은 제단 측의 시각평가와 그에 따른 점검농성 등 마침내 있기 했으나 30일 순조롭게 타결됐다. 학생대표와 제단이었다가 당시에서 축구방과를 뒤집어놓았거나 이를 이사장으로서 축구방과를 놓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나 교무위원회는 감을 통해 의한 발표의 가능도도 배제하지 않았으나 그로 가능성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이사를 전부터 이사장 발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곳은 서울총학, 교무위원회, 노동조합, 용인총학 등이다. 서울총학은 3월 이후 31일(화) 열린 집회에서 부총학

생회장 강성삼(사회·신방 4)군은 “지난 한 달 우리의 투쟁으로 얻어온 이 선언문은 학원법의 내용으로 풍물회사 켜야 할 것이며 원칙한 제단개혁을 위해 혁신 박승준방과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평을 밟았다.

그러나 이사장은 이를만에 선언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발표를 해 갖자지 추축을 넣었다. 즉 “1998년 1월 7일부로 박이사를 전무이사직에서 전격이탈되었으나 내용은 이사장이 아니었으며 회계사결과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이사를 다시 신임으로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나 교무위원회는 감을 통해 의한 발표의 가능도도 배제하지 않았으나 그로 가능성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이사장 발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곳은 서울총학, 교무위원회, 노동조합, 용인총학 등이다. 서울총학은 3월

(금) 집회를 갖고 “최후의 발악을 한 직원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총장권위를 침해하겠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규명하고 외대교원분석을 금지해 주려는 본관할이능동을 통한 박이사 출근지지에 나섰다. 또 주말은 2번의 일꾼결제를 당했다는 통보도 총장에게 전달됐다고 전해졌다. 모 교수는 “내이사의 재임성이 지상의 전당인 대학사회에서 가능하니 한 일인가?”라며 성토했다.

이번 주는 재선임을 시도하는 박이사

와 이를 막으려는 구성원들간의 한판 대결이 예상되며 그에 따라 학생들의 비상상황, 11일 일기장이 끝나는 이사장의 항방 등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0면, 11면

박승준기자



지난 2일(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전국 동시 다발 총궐기에서 IMF 재협상과 김영삼 사법처리, 정리해고 철폐 및 학생자치권 수호 등을 주제로 한 대규모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대중적인 만남을 통해 민중들의 공동된 분노를 하나로 모아내는 투쟁이었다.

임승희 기자

한총련 총궐기 성사

IMF재협상 김영삼 사법처리 요구

지난 4월 29일(목) 한국 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IMF 재협상 실시와 김영삼 사법처리, 정리해고 철폐 및 학생자치권 수호를 위한 한총련 총궐기 열었다.

서울자치의 경우 27개 학교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궐기에는 학생들은 미로니아 광화문과 청량리 등 서울지역을 둘러 시민선전장을 벌였다. 또한 학생들은 김영삼 사법처리를 외치며 상도동으로, 기려고 했으나 상도동 알데아 경기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원천봉쇄되어 거지 못하고 한自然而 들어가 정리집회를 마친 후 행진을 끝냈다.

이날 총궐기에서 학생들은 3월 17일부터 활동한 김영삼 체포경찰대의 활

베플리언스 다시 시작하는 재단투쟁

▲“박승준이사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박이사를 1998년 4월 2일 부터 다시 신임으로서 임명합니다.”(이숙경 제단이사) 지난 1일 직원들에 의해 배포된 글 중) 그간 일이 순회를 풀었다. 살어 은근히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월 7일 이숙경 제단이사가 박승준 제단전무이사를 이사장 축출을 모티브로 비리 등의 혐의로 김자숙에게 해임함으로써 시작된 이번 사태는 3월 한달 내내 외대의 뒤틀렸다. 외대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박승준 이사의 짐작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회관에 대한 활동방지 논의로 1인자이며 넘는 학생들이 노학관을 투기해 폐웠다. 그 결과 이숙경 제단이사장으로부터 우리의 요구가 담긴 ‘외대발전과 재단개혁을 위한 선언’을 받아내지 불과 이틀후, 이사장은 선언을 뒤집어버리고 박승준 이사를 제임하였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사장과 박이사가 막판에 도종의 합의를 보았는지, 박이사가 이사장에게 일종의 협박을 가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예상되었던 결과였는지 지금의 사태와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본반은 이번 사태로 인해 재단이사장으로부터 우리가 따낸 ‘선언’이 사실상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승준이 제임되면 제단이사회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외대를 퇴학하게 할 것이다.

▲답답하다. 투쟁은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너무 순진해지는 않는지도..

그런 측면이 있다(내리다보니 문화의 핵심은 역시 외대방진과 재단개혁이 없는 재단이니). 박승준은 분명히 퇴진,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선언을 번복한 재단이사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태에 대해 명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지향인 외대방진을 위해서 재단이사장의 민주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야말로 재단투쟁은 시작이다.

김정희

사회부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그동안 재단 내부 문제로 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박승준 이사가 본인을 이사장직에서 축출하여 한다는 제보가 있어 박

이사를 1998년 1월 7일부로 전무이사직에서 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도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본 결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써 박승준 이사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박이사를 1998년 4월

2일부로 다시 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재단업무

를 관장하는 박승준 상임이사에게 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

니다. 아울러 1998년 4월 2일부로 저를 보좌하였던 김종국 고문의

해임을 알립니다.

1998년 4월 1일 이숙경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이숙경

만우절 농담입니다?

98. 4. 1.

박승준 이사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박이사를 다시 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합니다.

98. 2. 13.

간급고수회

제작을 맡은 학우으로 출전하자 나머지 학우들이 경기를 나누고 전나

다. 박승준은 이날 차운 편집본과 함께 학우들에게 경기를 나누고 전나

다. 시설적 환경을 고려해 그들이 나누는 편집본과 함께 학우들에게 경기를 나누고 전나

다. 면서도 교관로서 편집본과 함께 학우들에게 경기를 나누고 전나

다. 예전에 교관으로서 편집본과 함께 학우들에게 경기를 나누고 전나

다. 예전에 교관으로서 편집본과 함께 학우들에게 경기를 나누고 전나

98. 3. 30. 외대발전과 재단개혁을 위한 신언

박승준이 박승준에게 주식 박승준과 함께 박승준이 박승준이 박승준이 박승준

그럼 전에 하신 말들은 무엇입니까?

외부회계법인이 밝힌 박이사의 비리사실이 단순한 오해입니다?

이사장님의 개인적 오해면 풀면 됩니까?

박이사 재임이 외대가 세계적 명문대학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족주주언론
외대학보

‘소중한 합의문’ 휴지조각으로

이사장 ‘박이사 재선임’ 발언으로 무용지물 위기



시작은 이숙경이사장이 학의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이다.

지난 1일(수)자로 발표된 이숙경 재단(학교법인)이사장의 박승준 전 전무 이사 제임벌·발언서건은 학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양 배터리 충전학생회는 물론, 지원노동조합, 교육위원회, 전체직원회의 등에서 박승준회장의 입장문을 명확히 밝힌 바 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수들까지도 그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사장은 박이사의 전화과, 이사장과 회의부분에 대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며 그를 비난하여 이사로 강등시키고 사용배움터 학생족과의 협의 자리에서는 사법처리의 속까지 했었다. 이런 심상을 학생들은 ‘기쁜’ 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3월 30일(월)자로 학의원 ‘한국의국내대학 박전과 재단개혁을 위한 선언’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같은 이사장의 행동은 이후 선언서 이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서울총회와 교무위 원은 예초 이사장의 박이사 제임벌·제이벌이라는 이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일(목) 조규원 총장직무대행과 이사

이사장 박이사 제3선
염두에 두고
선언 했을 가능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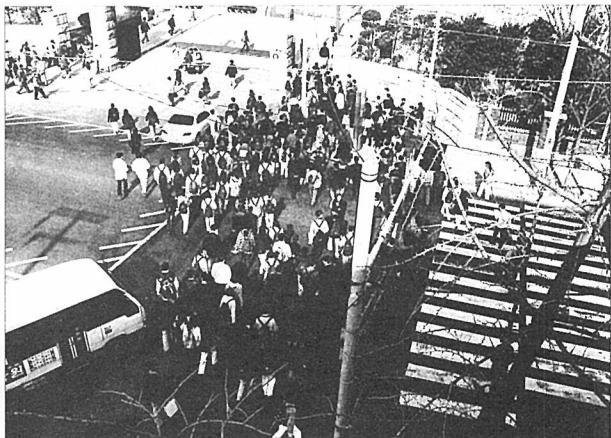
부분에서 이사장, 흥장을 제외한 나머지 7인 중 이사장이 4인, 동문회가 2인, 사회유지가 1인을 추천 할 수 있도록 했다. 흥장을 이사장이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사회의 최소 5인은 이사장과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박이사마저 들어온다면 이 사회계열은 요원하기 만 한 것이다. 또, 동문회의 경우도 그렇다. 총학에서는 동문 회가 박이사에 의해 장악했다고 주장, 재단의 개혁과 동문회의 개혁을 병행하겠다며 실현방안까지 내놓은 상태이나 그 것 역시 박이사의 ‘성장’과 함께 요원해지는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동문 회에서 총학의 입장 을 전면부정하고 있으나 동문회까지 그 런 가정하에 비리로 게 되면 이사장을 예 전과 마찬가지로 한

세력에 의해 강압된다는 말이다. 그렇 게되면 학생구성을 기반으로 명시하는 작업도,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사장은 선언서를 지킬 의지가 예초부터 없었으며 선언서 합의는 여론무미성이었다는 충족도 가능하다. 결국 학의서는 이사를 기능성이 크다. 가장 애용무려 큰 부분은 역시 재단이사회 개혁부분이다. 이사회의 성

셋째, 선언서를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다. 학생과 재단간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선언서가 이행되려면 법·제도적 틀이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은 그 일환으로 ‘합의서’ 형식이 아닌 ‘선언서’ 형식을 택했다. 부총학생회장 강성삼(사회·신문 4)군은 이를 ‘총학과 재단의 합의서’가 되는 것보다 재단이 불특정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선언하는 형식이라는 것을 확인 강제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선언의 담사자인 이사장이 마음을 들여버린 상태라면 그

재단개혁, 선언이행,
투자계획 등
지켜지기 어려울 듯



의료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모든 길이 외대로 통하고 있다. 서로 배울터에서는 아침 등교시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학교 학생들은 건널목을 무시한 채 차도를 가로질러 출입한다.

“내 물건 좀 찾아줘요”

학생들, 분실물 관리 체계 개선 요구

‘000을 찾습니다. ×××로 연락 주세요’

우리는 위 내용의 대자보를 흔히 볼 수 있다.

작년 학교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유

현제(자연·화학 2)군은 ‘작년 분실물을 찾는다’며 학교에서 지갑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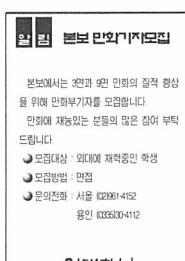
현제 유학원의 학생들은 당시 서

울배움터 총학회회장과 학생처장이었고 이를 확인하는 총장의 서명만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물건의 선언문은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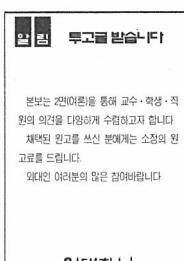
밀한 학생의 학생인 것은 확인하였다. 또, 이 선언에 대한 다른 선언원(교무위원, 직원 등)은 선언문과 함께 학생처장에게 확인하였다. 그러나 거슬리지 않을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1600명의 학생은 모인 힘으로 ‘소중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생회는 재단과 학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회장이나 양해해설특과 발전 역시 비현실적인 것으로 되고 만 것이다.

박운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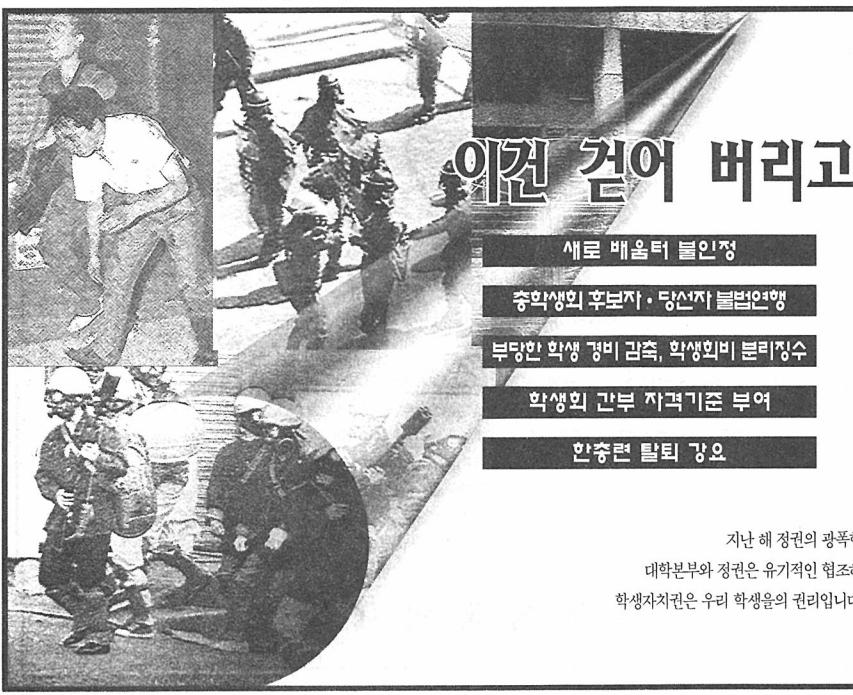


외대학보



외대학보

이건 걷어 버리고 이건 해냅시다!!



새로 배울터 블인정

총학생회 후보자·당선자 불법연행

부당한 학생 경비 감축, 학생회비 분리징수

학생회 관부 자격기준 부여

한중련 탈퇴 강요

지난 해 정권의 광폭한 탄압으로 학생회 역량이 약해진 틈을 타

대학본부와 정권은 유기적인 협조에 학생자치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권은 우리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진정한 학원의 주인된 권리를 찾읍시다.

한·중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학생 자치권 보장

학생 자치기구 인정

학생 자치활동 보장

민주적 학칙 개정

민족자주론
외대학보

이제 더이상 완전한 직업은 없다 5 - 대안①

일자리 나누기, ‘연대·협력’으로 자본통제력 확대

사회보장 확대 없는 임금삭감 반대가 전제되어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해고의 비郃은 잡증 더 거세지는 가운데 '무제도' 실업자 운동을 전파하자', '비정규직 조직화에 나서자는' 등 의 움직임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실업자시 대가 데미나리나 이노데모니의 국민들이 걸려 있을 그런 종류가 될 것인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일하지 않고서 저녁교보 글쓰기, 기 본적인 생활비가 보장되는 그런 종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가를 찾고자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먼저 실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실업자들은 어찌나 독일에서 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해 써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일은 강령력있는 세계적 독점자분들이 외국에서 벌여놓은 돈으로 그 나라 사회정책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렇다 무리는 독점자들은 그 독점자들의 경쟁력을 기우기 위하여 좀 더 깊숙한 자신의 노동력을

편집자
<글싣는 순서>
1. IMF시대, 고용현실과 고용구조변화
2. 고용위기의 원인
①새끼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3. 고용위기의 원인 ②한국자본주의의 IMF
4. 고용위기에 처한 사람들
5. 대안: ①노동시장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6. 대안: ②자본적 계제의 토대구조 .

<글심는 순서>

시장에 대한 통제를 통해 경쟁적 사회관계를 연대와 협력에 사회관계로 변화시키는 힘은 노동자가 생산과 시장에 대한 통제권력을 확대하는 것에서만 가능하다. 시장은 구의 행세에 몰려든 구직자들

아이 체결되었다. 노동조합, 농민조직들, 경영자들, 맥심과 경부수 '합법'과 문제에 관한 평등한 철학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해 맥심과 승무원들은 '위장금'과 '직국노동자연합' 부위 원장 애드한드라 비리에스는 말하였다. '합법은 무난하다. 그것에 의해 손해가 되면 건 물 가격이 불안정화되고 페트로 페터스의 실상에 직면하는 노동자들만 뛰어난다'는 걸 지난 10년간 겪어왔다." 따라서 맥심과 노동자들은 10년간 절박함에서 살아야겠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의 성격이 유럽 허기 합된다.

이 즈음에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하나의 인민적인 제제와 있다. 이를 통해 줄어든 작업 시간 만큼 일자리를 나누어 기록다면 고용인의 정도는 상당한 정도로 해소될 수 있다. 노동시간 감축은 현재의 경제적 위상황이나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기술발전의 상황이 그러므로도 그 성과를 시장구조원정화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럽의 노동자들은

적이라기 보다 멕시코에 가깝다면, 정부와 재벌이 유통하는 험생이 100%가 전수된 총이 넘어서나 프랑스는 35시간으로 단축시켰다.

것이라는 점은 경북대학원, 경북 한성고 기에
비단 고려 많은 학생 그림자들이 한글 서

있다. 생명보험, 자녀교육보험, 암보험 등 그 종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보험 상품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정책의 절대적 뒤페이지에 비롯된다.

따라서 일자리의 상실과 불평등 수준의 확대는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노동 시간 간歇 급여로 축소로 극복될 수 있는 사례 보고가 절대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그래서 서 일금 축소나 과정 감소로 꾸준히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밥'이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결핍은 자본주의의 시장질서 아래 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일금 삽작 또는 고정 급수로 고소득 수준에 허락으로 직결되어 상품의 생산과 재생산 폐기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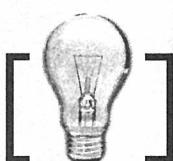
을 끌어내고 경제화시키고 만다. 요즘 TV의 공익방송이 일상적인 문화를 강조하는 것에서는 똑똑한 소비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바뀐 것은 비단 이전처럼 생활 메카로의 경지화가 벌써 실현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 사회적으론 자본과 복지체계를 차지하고 전 세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한 나라의 대안인 통합전략을 획득하기 위한 한 나라의 대안인

률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임금 죽수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팔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는 계속됩니다. 광고는 조용히 고 아름답게 빛나야 할 유통망과 물류망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소리의 폭발자입니다. 따라서 물질적 봄반뿐만 아니라 정신적 봄반이 동시에 회화입니다.

경쟁은 다수를 위한 면류관과 준비해두지 않는다. 따라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자 하는 자본의 노력이나, 개인 노동자의 노력, 국가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다른 수단과 협력하여 소수의 승리자로 분별되려고 만다. 경쟁은 승리자와 패배자 사이의 극극을 벌려놓고, 또 그 극극은 경쟁을 격飾시키는 힘으로 된다. 따라서 소수의 행복과 다수의 불행은 이 체계의 필연적 경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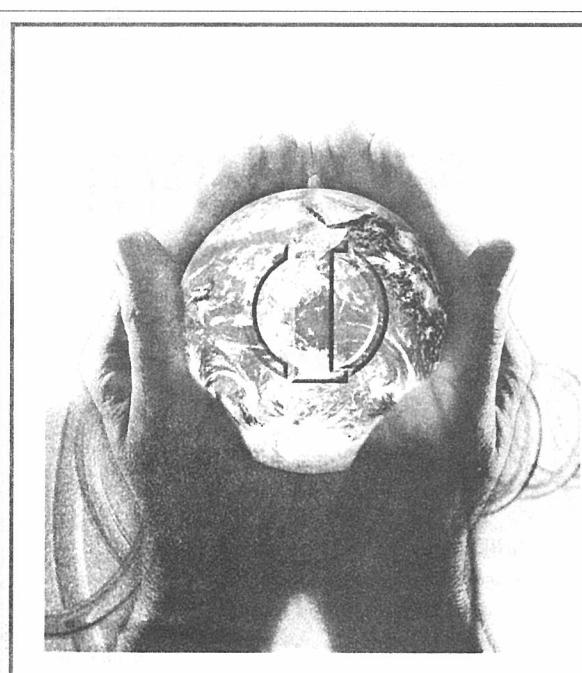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한

가자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시간
감축이 일은 삽질 논리를 뛰어넘는 데까지 나
아니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현 경
제위기에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두 가지
방식의 하나로 빌 가능성이 있다. 즉 경리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개별자본론 세워가기를
기반으로 한 노동조합 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세계화시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반세기만의 본격적 주목, 4·3 바로서기

지난 달 28일(토) '제주 4·3 제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작년에 범국민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해구(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교수), 활상의(서울대 의대 교수), 박명원(아세안 연구소 북한연구실장), 김종민(제민 일본 기자), 그리고 김성래(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석했다.

편집자

"제주도 사흘째 주민들은 꼼꼼한 모습을 목격했다. 한 여인이 토벌대의 지하에 떠나 자녀들의 잔인한 목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었다.... 토벌대는 무장대처럼 낮은 목소리로 불렀을 때 민가에 들어가 산에서 와디며 식량을 요구하거나 숨겨놓을 것을 예상했다. 그때마다 어려워 밥을 주는 사람은 군으로 본색을 드러나 토벌대에게 충돌당했다. 토벌대는 몇몇 시내에 총에 맞은 채 꿈틀대자 시신에 휘말려 끌어붙은 걸 짚었다."

"제주 4·3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정해구(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씨는 "전반적인 경향에서 볼 때 제주 4·3경쟁에 대한 평가는 거기 공산족동이라는 반공 이데올로기적 평가에서 최근 미군정과 경찰의 횡포에 저항했던 미중경쟁 또는 단선으로 반대투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3에 대한 역사적 시각 변화를 설명했다.

나보기 - 제주 4·3 항쟁 유족 박성주 씨

"맘 편히 제 올리고 울 날이 왔으면"



제주도 제주시 이호 1동에 살고 있는 박성주(66). 15살 어린 나날에 죽은, 잊고살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 기억을 재회시킨다며 온 기자들에게 그는 먼저 4·3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맙다는 말을 인사를 대신했다.

4·3 당시 미군 내에서 사소한 일로 의견충돌이 일어나 경찰서까지 가게되면 경찰은 이를 아무 이유없이 공산당이라고 매도하여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로 6개 부락에서 20명 정도가 희생됐다. 그들은 절대 마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그때 회생당한 사람들은 모두 아무 죄 없는 양민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버지들은 당시 우리 청년단장으로 활동했다. 그 때문인지 청년단에게 폭도라고 불려지던 선사람들에 의해 회생당했다. 당시 제주중학교에 다니던 것으로 기억하는 형은 지금으

로 말하면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경찰에 불려갔고 비슷한 혐의로 불법한 사람들과 함께 광주로 옮겨져 그곳에서 죽었다"며 기가 막힌 가족의 죽음을 대해 덤덤하게 털어 놓았다.

이런 기묘한 경우가 제주도민들에게는 특수한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4·3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4·3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생각을 묻자 "당시의 상황에서 빛을 때 그들은 미군의 지시를 받았던 것 같고,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겠지요"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직장에 들어갈 때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경찰에 의해 회생되었다는 게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지요."라며 연좌제의 피해에 대해서

제재권도 없이 무자비 대량학살시켰다. 이것은 심지어 정시체제일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군정과 이승만정부에 의한 제주 4·3의 대량학살설을 비난했다.

제주 4·3경쟁의 성격규정 문제와 관련, 정해구씨는 "4·3의 성격문제는 상당히 미묘하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불기를 언제나 빨간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뒤집어씌웠다"며 제주 4·3의 성격을 '방영'으로 규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 연구원은 "그동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가 그에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했던 미군정에 반반한 제주도민의 이러한 불기는 일련한 저항에 속한다"는 의견을 꾀하였다.

또한 북한과의 연계설에 대해 "실제 4·3경쟁은 북한이나 남로당과는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자체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처음 1천 명정도인 사람들이 1년에 300명으로 늘어나면서 그들은 도대체 남북되지 않았다"며 북한이나 남로당과의 연계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전쟁에도 전쟁없이 있다. 하물며 전쟁이 아닌 상황의 당시 한국에서의 모든 일은 국내법으로 따로 재판을 통해 처리되어야 했다"며 "심지어 계엄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계엄법에 의거하여 모든 일이 진행되었어야 했다. 제주 4·3 당시의 토벌대는 무고한 양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역사 순례

눈 앞의 손마저 볼 수 없던 암흑의 4·3

제주도의 또 다른 이름은 '삼다도'이다. 바람, 물, 여자가 많다고 해서 불어진 이름이다. 그러나 50주전 4·3경쟁을 겪은 후 이 삼다의 의미는 시체, 피, 눈이 많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역사의 글레에서 절저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4·3경쟁은 단독 정부를 도모했던 미군정과 그 대리인인 이승만 세력에 대항하여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평화를 울린 제주 도민의 피의 역사였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4·3경쟁.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 미술의 쾌적을 추적하고자 남제주군 인덕면 동관리를 찾았다.

공원에 내리자마자 '현재 제주 국제공항은 4·3경쟁 수많은 인근 주민들이 청화된 제주의 하늘였다'는 우리 학교 한국근현 대사 박근형 교수의 말이 생각났다. 대규모 양민 학살장을 엮어버린 국제공항은 4·3을 절차로 역사 속에 숨겨져 왔던 위정자들을 위성과 같이 보았다. 아울러 활주로 밑에는 죽은 순간까지도 예 죽어 앓는지 모르며 악을 하게 죽어 간 양민들의 냄새를 헤아렸다.

4·3은 외연적인 회생인가 유태인과 유기족들의 2세·3세들의 4·3에 대한 생활은 어떨까?

"제주도 사람들의 4·3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상에서도 모른척 하는 경우와 정말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제주대 총학생회장의 말에서 반색기 동안 입을을 비운다. 보통 제주의 어른이 겨우 물어갈 이었다. 그 주제이며 '남북' 정부는 제주 4·3경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해법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도 50주년을 맞은 4·3은 역사 속에 숨겨져 있었던 제주도민의 흔적을 찾기 위해 청화된 제주의 하늘을 헤아렸다. 이는 김경후 대(4·3경쟁수습기금)의 말은 당시 학생의 처참함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4·3은 외연적인 회생인가 유태인과 유기족들의 2세·3세들의 4·3에 대한 생활은 어떨까?

"제주도 사람들의 4·3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상에서도 모른척 하는 경우와 정말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제주대 총학생회장의 말에서 반색기 동안 입을을 비운다. 보통 제주의 어른이 겨우 물어갈 이었다. 그 주제이며 '남북' 정부는 제주 4·3경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해법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것은 4·3의 문제해결이 피폐해보 수준의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폭도로 몰려 악용하게 돌아가 신 도민들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무역보다 4·3 자체적인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한 당당한 투쟁이었음이 밝혀져야 한다.

임승희 기자



사진은 4·3경쟁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의한 초토화 작전을 피해 동강에 마을 주민들이 숨어 살던 큰날짜 동굴

사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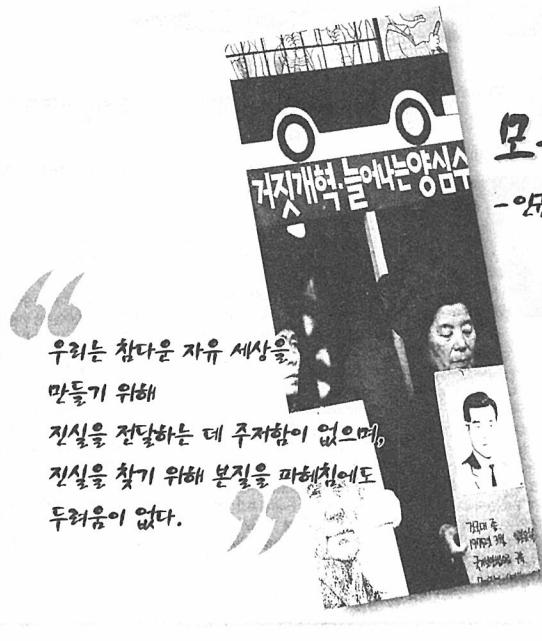
당사는 독일 섬유회사의 한국 Agent로서 함께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직 종	인 원	비 고
Agent	여 0 명	73.1.1일 이후 출생자

- 자격: 독일어 회화에 능통한 자 (독일어 전공자 우대)
영어회화 가능자 우대
- 출신서류: 자기소개서 1통
이력서 1통
- 제출시기: 98. 4. 13(월) 까지
- 제출처: (137-070) 서울시 서초구 소초동 1463-10 신진D/F 5F
-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SIKOTEX
Creation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모든 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

일시: 1998년 4월 7일 화요일

3시 / 인권영화 '세발 까미귀'

5시 / 강연회

장소: 6104

주최: 15대 동아리연합회 · 32대 총학생회

사회기획



IMF 시대, 청계피복 노동자의 항변

“예전엔 머슴이었는데, 지금은 노예야”

‘고통을 국민들이 분담합시다’ ‘경제위기는 국민들이 얼마나 참아야겠습니까?’라는 구호가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고봉분당문의 논리는 사회에 대한 불만도 참고 이야기에서는 안되는 것처럼 사회여론을 물이가고 있다. IMF를 믿으면서 IMF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노동자에 대한 경리해고를 자주풀게 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는 노사정 합의를 거친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매일 일간신문 사회면을 살피는 노동자 분신, 실직, 거리를 빙빙하는 어부자들,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 과연 지금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산기자와 노동현장을 만나기 위해 청계가기에서 위치한 청계피복노조를 찾았다. 그리고는 노동자 1인당의 복지공장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청계피복노조는 전태일 열사의 후배들이 건설한 노조로 현재 김경호(33)가 위원장으로 있다. 노조사무실은 열자마자 눈에 띠는 점이 있다. ‘현상수비: 흥성(도그콜렉션 사업)’ 그는 작년 12월 1일 고의부도를 내 160여명 노동자의 임금 556억원을 떼먹고 도망감’이라는 수배판단은 현재의 노동현장을 짐작케 했다. 현재 경도콜렉션 노동자들은 ‘흥성호 체포조’를 운행하면서 160명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고 사파 한미디 안한 그에게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 밀린 임금을 꼭 받아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한다.

전단을 분포 노조사무실로 들어갔다. 5명의 노동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현장 노동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경제기자 무장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며 “저들은 (주)이신 우 직장인으로요.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은 실직 상태로”라 말한다. 그들은 회사부도로 인해 서달력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며 그들에게 소개시켜 준다.

“학생이니까 우리 guy에 주는 거야”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대 학 기 획

<글싣는 순서>

1. 학교법인의 지위와 역할
2. 일그러진 동원학당의 역사
3. 재단전환, 어디서 오는가?
4. 재단나운 재단으로 ①
5. 재단나운 재단으로 ②
6. 재단나운 재단으로 ③

재단 바꾸기, 외대살리기 - ⑤ 재단다운 재단으로 2 - 중장기 학교발전 계획

'세계를 호흡하는 외대'는 꿈일 뿐?

특성화 중심 장기발전계획 필요, 재단투자계획 없으면 실현 불가

학생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교육환경문제도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에서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의 투자계획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본관 전경.

여대 학교발전 계획안을 추려본다

대부분 합의 내용 지킨 적 없다

80년에 기획한 한국의국어대학교정기발전계획서를 살펴보면 '문리대(한인언어)가 기관 면지 용인과의 스스로 이전하는 90년대에 법정대학(현 법대, 사회대), 상경대, 사범대가 차례로 이전한다. 또한 90년대에는 서양어대, 동양어대가 이전하고, 공과대, 기정대, 미술대, 음대를 차례로 문을 연다'라고 나타나 있다. 이전에 진행되며 90년대에는 용인매립터에 10개 단대, 6대 대학원, 6천여 학생과 교수, 직원이 90년대에는 원인매립터에 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있다. 그러나 서울매립터 소속 단대의 용인이전은 제외하고, 용인매립터에 설립하기로 예정했던 대학 중 현재 설립된 단대는 오직 공대뿐이다.

90년 서울매립터의 204만㎡ 수립 거부, 충장실 짓기 등의 무공과로 인 어낸 학문은 '자족형 그린벨트 해재단전위회구성, 서울·원인 특화 발전'이 중심이다. 그 내용은 살펴보

면 '장기적으로 문과계열 제조점을 통하여 서울은 인문캠퍼스로 용인은 이공계 캠퍼스로 확장된다'는 예상과 같은 공기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워 흡족하게 민족학부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투쟁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료집에서는 '학원지주화(학자)부정'이라 학생이 학원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요구에 맞게 학원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학자부정의 지원은 나 자신만 위한 대학이나 아닌 민족과 조국을 위해 일하는 민족인간의 배움터. 즉 민족대학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혀고 있다. 또, 민족대학건설을 위해서는 3주제가 자신의 울바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인적토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확충이라는 목표를 구체화시키기로는 재정 확충방안 등 미약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학의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대부분 사립학교법상의 해에 아무런 힘이 없는 '총장'과 학생들간의 합의로 끝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학생회도 대학입국에 의해 이용되거나 조사하는 등 제대로 학의서 이행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대학부

비둘기 칠판

이 문 별

미당1: 수영강습회, 수영부 주관
미당2: 하루감독체험, 사회과학과 주관
미당3: 해설과 그림전, 해설 주최
미당4: 바둑대국, 바둑단 준비
미당5: 애드리언 광고전, 애드리언 주관
미당6: 신나남 나는 카풀, 경당 준비
미당7: 산악 전시회, 산악반 담당

- 알립니다
 - 동아리 한마당을 합니다.
기간: 4월 6일(월)~8일(수)
장소: 복은 광장, 도서관 앞뜰
구성: 상설마당, 토론탄당, 음악마당
- △ 산설마당
 - 기간: 한마당 전기기간
장소: 복은 광장에서 도서관 진입로까지
미당1: 경애체험, 봉사봉과 담당
미당2: 침, 품술 체험, 온누리 수족집 담당
미당3: 우리말 품이 경연대회, 우리말 연구회 준비
미당4: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사진반 준비
- 토토면마당
 - 한총련에 대한 공청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간: 4월 6일(월) 12시
장소: 복은 광장 혹은 도서관 앞
참여: 동아리연합회, 각 동아리,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과학생회등
- 인권! 이제 더 넓은 비단로...
 - 강연회: 김연자·서준식
기간: 4월 7일(화) 6시, 대학원 101호
- 영화제: 강연이 시작하기 전, 인권단일에 관련된 영화를 상영합니다.
기간: 4월 7일(화) 6시, 대학원 101호

지난해에서 우리는 국가기독사업의 대행이라는 시립대학의 진정한 역할에 맞지 않는 국립된 현실을 고찰하면서 이의 원인은 시립학교법이라는 악법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재단이 행해야 있는 전권을 구성원들의 것으로 돌려 재단(법인)이나 사전에 개혁해야 하며 민족적 의사수집구조가 바람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호에서는 재단과 함께 진행되어 질 학교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기한다. 중장기계획은 왜, 어떻게 짜야하는지, 수립에 따른 부대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외대라는 특성과 현대화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편집자

고 그에 비정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므로써 명실상부 2000년대에 대비 해야하는 당위성 때문에 계획수립은 신중을 표하고 말하고 있다.

어디서 밤전계획은 미래대비는 취지에선 다른 틀이 없다. 중장기 밤전계획은 바로 21세기 변화하는 환경속으로 세계를 흡족하게 민족학부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투쟁이다!

이번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립터 총학생회가 일군교장자료집에서 밝힌 외대발전부정의 의미이다.

대학교수회(교수는 특성, 민족적 차원의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사립재단은 학교에 대한 투자라는 문제를 잊은 대학과 학생들의 특별금을 유회·착복 하면서 사립대학을 이운축구의 장으로 전락시킨 현실에 대한 각자 이를 꾸려는 노력으로부터 외대발전부정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전에 대학부정부장을 시작하며 서울매

대학보 도

용인, 동구어대 주창석 당선

동구어대 분리 재단문제 해결 등 사업추진

용인배움터 동구어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 29일(목)에 이룬 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무표결과 주창석(동구어대·체 케어 4기)은 재직원 77명중 투표 443명, 찬성 412표, 반대 22명, 무표 96표로 7대 동구어대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주창석군은 △동 구어대 분리 △한총련 혁신과 재 건 △재단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구어대의 윤리 기장 중심적인 사학인 동구어대 분야의 경우 교 수님들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 번 달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 동구어대 정기총회 개최

동구어대 분리, 한총련 혁신과 재건 논의

오는 8일(수) 오후 4시 용인배움 터 노천극장에서 동구어대 정기총회 및 협의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구어대 분리 △한총련 혁신과 재건 △재단문제 △학생회 역할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동구어대 분리와 관련하여 지난까지 해왔던 성 배를 풍부화하고 결과와 동구어 대 분리의 당위성 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재단문제와 관련하여 재 단어사회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한 행운의 불안정화, 베슬운 상 이사직에 물 안건과 같은 학생들과 논의 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가 발전 후 학생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대를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유발언 대는 행사가 시작할 때 학생들은

게 백지를 나누고 학내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갖고 있는 동 구어대 학생회장 주창석(동구어대·체 케어 4기)은 “동구어대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로 단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용인, 내일 서학 정기총회

재단문제, 학생운동과 한총련 등 논의

용인배움터 서양대학 정기총회 및 협의식이 오는 7일(화) 오후 3시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기량스런 10년의 역사 세월은 10년의 도약”이라며 모토를 내걸고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는 △상남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년 총노선 및 1학기 사업안 △인준 △외래의 주인은 나 등의 안건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다.

‘외래의 주인은 나’에서는 현

의를 밟았다.



동양어대 해오름식

지난 3월 30일(월) 서울 배움터 노천극장에서는 동양어대 정기총회 및 협의식이 있었다. 9년도 동시 시연번역을 비는 고사과 재단원과 노래 가사 부르는 대회가 있었으며, 중국어과 ‘홍바람’, 이어 ‘처음처럼’과 ‘통통’의 새로운 창작들을 선보여 동대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임승희 기자

대학단신

① 대사랑 선봉대로 활동중인 최낙훈군을 만나



“학생들의 참여를

이사람

이끌어 내겠다”



나훈(동양·중국어 3기)은 만 날 수 있다. 이숙경 재단이사장은 지난달 30일(월) △박승관·노진언·재단 이사장·개편·교협한전·한국인△ 회의사항·준수율 등을 주제로 하는 선언서에 서명했으나 복수 이틀 후인 지난 19(수) 학교인사장과 함께 학생들을 만나는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라고 말하는 최근은 “도서관, 식당, 강의실 등 학생들을 찾아나니며 알려내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목록 허 우리가 먼저 실천하여 결국 학생들의 참여를 이루어 내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꿈입장을 관심과 함께하여 외대역사의 물줄기를 끌어놓는 큰 힘을 되기로 소망한다. 우리의 행운 하나님 나누기 결과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그 단연한 사실이 특별한 공감으로 다가왔던 것은 외선대의 꿈은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김경선 기자

서울, 일부과 개강총회 열려

지난주 일본어과, 영어과 6일 터키어과

서울배움터 일어과 개강총회가 지난 3월 30일(금) 대학원 소국 장에서 열려다. 이번 행사는 방송 사업보고·작년 학생회평가·회계개정안·1, 2학년 대표선출 등 안건에 대해서 논의됐다.

이번주 6일(월) 터키어과 개강총회가 열린다.

체코어과 회장 김용현군 당선

세미전 준비, 체코어과 10주년 기념행사 등

지난달 30일(월)부터 31(화) 이틀간 11대 체코어과 회장 선거가 이룬 1층 로비에서 있었다. 이번에는 모토로 출마한 김용현군은 △체코어과 10주년 기념 행사준비 △세미전 준비 △동구어대 분리 등을 토론해 학교운영에 있어 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용인, 동구어대 체전 오늘 개막

3일간 각 과 5종목으로 진행

용인배움터 동구어대 체전이 오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3일간 소문점장, 학생회관동, 농구장, 명수당 경기장, 대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첫날인 6일 축구, 피구, 농구, 발구 4종목의 예산전을

시작으로 7일까지 예산전이 차지되며 마지막날 8일 결승전이 치뤄진다. 미지막날 행사인 축구대회는 등구동에서 열린다. 첫날인 6일 축구, 피구, 농구, 발구 4종목의 예산전을

용인, 동연장 나주철군 당선

18표차로 기호1번 방천형군 앞서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동연) 회장선거가 지난 29(목) 동연신에서 있다. 이번 동연장선거에서는 재직원 197명 중 206명이 투표에 참 가했으며 기호 2번 나주철(경상·경영정보 3기)이 112표를 얻

어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함께하는 학생회’ 가까이 있는 이는 187표를 얻었다.

전반 신방파와 원하는 공격으로 점을 앞선해 끝

제17회 모의 월드컵 폐막

우승·영어과, 준우승·신방파

지난 3일(금) 영어과 신방파와(신방파) 결승전을 끝으로 제17회 모의 월드컵 막을 내렸다.

‘함께하는 학생회’ 가까이 있는 이는 187표를 얻었다.

전반 신방파와 원하는 공격으로 점을 앞선해 끝

쳤으나 후반 영어과의 동점골로 승부를 거리지 못한

채 연장전에 들어갔다. 연장전 전반도 득점없이 끝

나 후반전으로 들어가 영어과가 골든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복수전공 이수 신청인 자격은 △7학기(초기 플업 6학기)까지 저·전공 평점 평균이 2.5이상인 자 △제4전공을 8학기(초기 플업 7학기)이나에 이수 할 수 있는 자 △복수전공 회망학과의 부전공 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8학년 이수 신청자는 정기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되 인적사항은 복수전공 회망 학과, 현재 학부번호 기재해야 한다.

복수전공 이수하기(자) 8학년 8월 출판예정자는 정규 수강 신청 기간내에 수강 신청을 하되 인적 사람은 복수전공 회망학과, 현재 학부번호 기재한다.

한편 제출증명서는 전학년 성명증명서 각 1장을 오는 5월중 대체별로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를 공고한다.

주간일정표

6일(월)	7일(화)	8일(수)	9일(목)	10일(금)
● 서양대학 정기총회 및 협의식				
동구어대 체전				
동아리 새마을 모임 한민당				
● 터키어과 정기총회				
서울 히말라야				
● 서울 용인 수강신청 취소기간				

첨단학술정보센터 이용안내

교육부 신한 기관인 첨단학술정보센터에서 1997년 12월 말부터 학술정보 서비스 시스템이 교육전산망을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인내 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서버종류 : 종합목록서비스, 전문학술정보서비스, 해외학술정보서비스, 학술지원정보서비스

2. 서비스 이용방법

1) 학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첨단학술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kric.ac.kr>)로 접속하신 후 이용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이용자등록을 마치신 후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단학술정보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이용자 등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홈페이지 (<http://hufslib.hufs.ac.kr>) 국내외 도서관(국내 유령 도서관)에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상담 연구소는 외대인을 위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여러분께 문제들을 여기에 와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도움

- 개인상담 : 정기문제, 대인관계, 진로문제, 이성문제, 성격문제, 대학생활문제 등을 상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 집단상담 :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자신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상담 : 유학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 심리검사 : 자기가족을 포함해 개인적 상황을 조사해 드립니다.

- 적성검사 :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조사해 드립니다.

- 자료실 이용 : 위임, 대체원 진학, 유학 등 정보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국 대사를 통하여 입국 및 유학관련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장소 : 학생회관 2층

■ 이용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정시시간 12시 ~ 1시 사이는 제외)

▶ 상담이나 심리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입생 인성검사 결과 해석 안내

98학번 신입생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때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오셔서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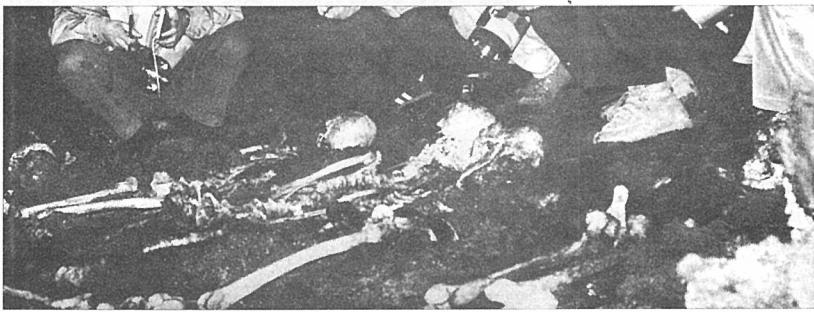
행사는 신입생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p

수필 - 4·3행쟁 50주년을 기리며

사(死)와 삶의 원흔을 달래야 한다

통일 조국 건설, 이제는 꿈에서 현실로



4·3은 국사 교과서에서 조처 최경 융공 폭력 혐의로 하였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는 법. 많은 이들의 연구의 조사를 통해 4·3의 진실은 밝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훤저한 진상규명이 빌어져야 한다. 사진은 디밍기굴에서 발견된 사체다.

어느날 문득 학교 붉은 광장에 캐나란 대지보판이 서 있다. 1948년 4월 3일, 익울하게 죽어간 원흔들을 달려며,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왜 죽어갔는지, 그들의 요구와 지향, 희망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아! 벌써 4·3제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50년이나 지났구나!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그들의 희망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데...

허무하게 시간만이 지나고 있었구나!

아직도 그들의 죽음은 죄책감도들의

당연한 죽음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정권을 비롯한 자매권력은 해방 이후 일어난 제일의 사건들을 모두 죄와 무의 대립과 충돌로 규정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사실은 원천한 우리 민족의 해방과 통일조국 건설을 비롯한 일본제민족들과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본토에 빛 불이 호의의식하던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제국주의에 빛불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지배자세력간의 대립이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이어 또 다시 미

제에 종속되어 악입받은 말든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했다. 일제에 의해 단신왕이 된 우리 한반도에서 그들은 환경이 변할 때마다 깨깔이 바뀌는 카멜레온처럼 미제의 일감이 되어 스스로 우아이라 일컬었다. 죄와 삶! 진정한 정치적인 의미에서 당시 죄와 우아 사회주의를 추구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느냐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민란으로도 알 수 있다. 바로 4·3으로도...

'사(死)·삶'... 어느 기념사업회에서

내 자료집의 제목이다.

정말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민중들은 죽음과 삶의 중간에서 허우적 거렸다.

해방 이후 또다시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려는 미군정의 식민지정책이 점차 노골화하고, 우리의 힘으로 자주 회복되고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민중들은 스스로 만들었던 인민위원회가 하나둘씩 파괴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중들은 또다시 일어난다.

1948년 9월 대구에서, 철도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곳곳에서 빛치산 투쟁으로... 미제와 일잡이들은 무자벌 학살했다.

제주 민중들도 미제의 만행에 항의했다. 1947년 3월 1일, 제주민중들은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조선시대부터 소외되었던 한라산을 중심으로 의연히 한민족의 기상

을 지니고 있던 제주도는 피로 피로 물들어갔다. 미제에 의해서, '우'라는

기념을 숨은 일잡이들에 의해서...

기근과 기.Startup, 폭력... 민중들은 죽어갔고, 제주도는 피로 물들어갔다.

아무런 죄없이, 그저 이제는 억압받

지 않고 좌우받지 않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고싶을 뿐이었는데... 그냥 해방된 나라에서 이제는 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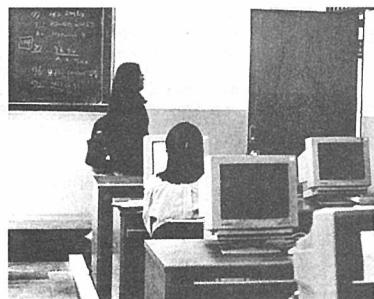
제작자 5·18 광주민중항쟁의 학살자들이 처형되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5월 광주 주의 정신을 되살리고 그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었던 신군부의 시대가 끝나서...

하지만 4·3 제주 민중들의 원혼은 아직도 묻고 있다. 그들이 바라던 통일된 조국 건설이 아직도 우리 민중들에게는 꿈에 불과하기 때문일까?

허무 뱀파리 4·3제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사(死)와 삶의 중간에서 떠들며 울고있는 제주민중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수미

(부교 출입성)



인문과학관 2층에는 4개의 컴퓨터 실험실이 있지만 4 실험실은 늘 징거있고 3실험실은 구형이거나 고장난 컴퓨터가 많아 학생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다. 실관에는 진짜쓰인 예러 메시지가 보인다.

김순배

(서양·서번사이어 3)

1점

포르투갈어과 노기비

미래소년 코난을 개시함

청년전국기 개시

2점

너무 넓다 붉은 광장(광장)

너무 좋다 노원 국장(노천)

러브호텔 교수연구동(파랑동~)

6분 앤족 커피스 (승차!)

○○이가 외대의 피를 뺀다.

맡아먹는다. 사법처리 물워주법

대머리. 캐저버리 버리재단 의사진

외대발전 자곡동 이전 우리의 소망

나의 사랑 포어(파)

나의 사랑 서대(여)

나의 사랑 외대여!

체액질 분야 한에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어로운 의대의 달걀기 입자기 부종기 달걀기

자곡동 푸른아늘 비둘기 이름기 들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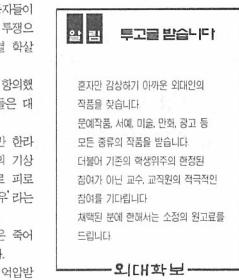
자주의 날개로 이문동 벚나자곡동 양으로 힘들기

우리 외대의 주인은 달걀기 달마다 악가한에 뒤뚱뒤뚱

달걀기 성초 대마리 ○○○, 일마나 차역에서 배풀풀

(이숙경) 할머니가 열매야 ○○○ 모기지 5분전

7천의 힘으로 박승준 백발이 민주재단 개편 이루자



외대학보

